

‘재벌개혁, 현대기아차 노조파괴·노무관리 적폐청산부터’

노조, 현대차 본사 앞 결의대회... “불법과건, 악질 노무관리 주범 정몽구 구속하라”

현대기아자동차그룹사 (아래 그룹사) 금속노조 17개 지부·지회와 현대기아차그룹(아래 현대기아차)의 노조파괴, 불법과건으로 고통받는 노조 조합원들이 현대차에 ‘악질 노무정책을 전면개혁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 노무정책 전면개혁 투쟁주간’ 마지막 날인 6월14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불법과건, 노조파괴 범죄 중단, 재벌 노무정책 전면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그룹사 17개 지부·지회 간부, 조합원과 유성기업지회, 동진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중단하라는 소박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현대차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포했다.

그룹사 17개 지부·지회 대표자들

은 이날 대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들은 “우리는 현대기아차의 시대착오 노무관리 전면 개혁을 요구한다”며 “현대기아차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 현대기아차가 저지른 악질 노무관리 적폐를 청산하는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현대기아차 재벌의 노조파괴와 불법과건을 끝장내는 투쟁 ▲노조파괴·불법과건 현행법 정몽구 회장 처벌 촉구 투쟁 ▲유성기업·동진오토텍·현대기아차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원하청 단결 투쟁 등을 결의했다.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해제

16일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해제와 6월21일 07시40분 업무복귀 공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이 6월21일 수요일 07시40분 공장으로 돌아간다.

갑을오토텍 회사는 6월16일 오후 ‘직장폐쇄 해제 및 업무복귀’를 알리는 공고를 붙여 이같이 통보했다. 철야농성 344일, 불법직장폐쇄 326일 만이다.

업무복귀 대상은 2016년 7월26일부터 시행한 직장폐쇄 대상인 전국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체 조합원이다.

갑을오토텍은 업무복귀 시 산업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회는 6월12일 오전 8시 전 조합원 업무복귀를 선언했지만 회사

는 노무수령을 거부해 왔다.

지회는 “끈질긴 투쟁으로 조합원들이 공장에서 일할 수는 있게 됐다”면서도 “회사는 고용보장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어 여전히 노조파괴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교섭도 진행해야하며 김종중 열사 문제도 해결해야한다”고 알렸다.

민주노총, 6·30 사회적 총파업 승리 결의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단위사업장 결의대회...노조 할 권리·원청 직접 교섭·최저임금 1만 원 등 촉구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노동적폐 청산과 6·30 사회적 총파업 승리를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6월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동적폐 즉각 청산, 노정교섭 촉구, 사회적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



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노조 할 권리 보장 ▲원청사-하청 노동자 직접 교섭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촛불혁명으로 정부를 바꿨지만, 노동현장에 여전히 폐가 남아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 열망이 있을 때 노동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 청운호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해 정리집회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5월27일부터 19일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며 벌인 농성을 이날 마무리했다.

하이디스지회 정리해고 무효 민사소송 이겨

16일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해제와 6월21일 07시40분 업무복귀 공고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가 정리해고 무효 확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6월16일 이상목 지회장 등 정리해고 조합원 58명이 하이디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이디스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하이디스의 노력이 부족했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목 지회장은 “너무 늦은 판결이지만 기쁘다. 하이디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루빨리 해고자들의

고용에 대해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성원하고 연대, 지지로 도움 주신 모든 분들과 승소의 기쁨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지회는 정리해고 8백일을 맞아 정리해고 철회 집중투쟁에 들어갔다. 지회는 6월7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파괴범 발레오 강기봉 징역 8개월 선고

16일, 노조파괴 7년 만에 경주지원 1심 선고...검찰 구형보다 형량 줄어

노무법인 창조건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저지른 강기봉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발레오만도가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한규업)를 깨기 위

해 불법 직장폐쇄를 단행한 지 7년 만이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6월16일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 발레오만도주식회사에 벌금 오백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벌금 천만 원이었다. 법원은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범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벌금 삼백만 원을 구형한 지대현 공장장, 이재원 인사노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